치 사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5회 불교인권상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이 지난한 길임을 알면서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삼세 성현聖賢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각들의 보살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만물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하고 고귀합니다. 또 이런 존귀한 존재들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여 삼라만상을 이룹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연기緣起로 설명하셨고 자비慈悲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가 혼재해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칫 이렇게 소중한 관계들이 부정되기 마련입니다. 오로지 물질적 가치와 개인의 영리만이 관계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로 접근하게 됩니다. 인권운동은 일체만물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주려는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불교의 근본가치와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15회 불교인권상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님"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상재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두 분의 노력은 가치 혼돈과 이해대립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불균형과 갈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소중한 인연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평가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도사회의 지배논리인 카스트제도를 향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른 업[과보]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는 부처님의 탄생 선언 역시 인간의 존귀함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일대 선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불교인권상"을 수상하시는 두 분은 각

각 자신의 분야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같은 길을 걸어 온 것입니다. 두 분의 노력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계종단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정신 아래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교 내적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주목하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개인과 단체 여러분께서도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사회의 인권과 소중한 인연 질서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함께 빛을 발하기를 발원하며 늘 기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분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3(2009) 1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